

# 지난해 농어가 소득·부채 모두 늘었다

### 농가소득 전년비 10% 늘어 5000만원 첫 돌파...부채는 19% 급증 어가소득 5477만 9000원...부채 두자릿수 상승 평균자산 '제자리'

지난해 국내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이 크게 뛰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 8000원으로 전년(4615만 4000원) 대비 467만 4000원(10.1%) 상승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모두 합한 값으로, 지난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의 차를 가리키는 농업소득이 17.5%로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해 농가들의 연평균 농업총수입은 3792만 2000원으로, 농작물 수입(+10.3%), 축산수입(+4.6%) 등이 증가하면서 9.6% 올랐다.

농업경영비는 2677만 9000원으로, 재료비(-0.4%)가 소폭 감소했으나 노무비(+8.2%), 경비(+13.0%) 증가로 인해 6.6% 상승했다.

이 외에도 농업외소득은 1999만 9000원으로 4.2% 증가했고, 이전소득(1718만 8000원)과 비경상소득(249만 7000원)은 각각 전년보다 12.7%, 1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소득이 여러 부문에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농가 부채는 소득 증가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평균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158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3502만 2000원)보다 655만 9000원(18.7%) 증가했다.

농가의 부채는 농업용(+26.1%)과 겸업·기타용(+28.1%)을 중심으로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농가소득 증가폭보다 부채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농가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억 804만 원으로 전년(6억 1646만원)에 견줘 842만원(1.4%)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어가 역시 연평균 소득은 소폭 상승했지만, 부채 증가폭이 소득 증가폭을 3배 이상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가 연평균 소득은 5477만 9000원

으로 전년(5291만 1000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어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업소득이 39.1%로 가장 높았고, 이전소득(29.6%), 어업외소득(26.7%), 비경상소득(4.6%) 순이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어가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141만 4000원으로 1년 전(2072만 2000원)보다 3.3% 올랐다.

어업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이전소득은 1619만원으로 5.5% 감소했지만, 어업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15.3%, 7.2%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어가의 부채 역시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면서 평균자산은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의 평균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6651만 2000원으로 전년(5977만 6000원) 대비 11.3% 증가했다.

어가부채는 어업용(+10.4%), 겸업·기타용(+33.0%)을 중심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어가소득 대비 부채 증가폭이 3배 이상 높아지면서, 지난해 어가 평균자산은 5억 1427만원으로 전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좋은 콩 종자 고르셨나요?

#### 종자 구하기 어려워져...재배 쉽고 품질 수확량 고려해야

좋은 종자의 선택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한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최근 기후 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병충해 등에 강한 우수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농사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에도 키우기 쉽고 품질은 좋으며, 수확량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종자를 찾는 일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콩 농사를 시작하려니 종자 선택하기가 막막해 답답할 노릇이다. 간간히 콩 농사를 했지만 보관해둔 종자가 없고, 수확한 지 일년이 지나면 싹이 안 나거나 알이 차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 것이나 심을 수 없고 좋은 종자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달밭에 심어도 콩은 잘 난다지만, 콩 농사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여"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새로 콩 농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미리 공부도 하고 종자도 준비해야 했는데 게으름이 도가 넘었다. 지금이 5월, 콩 심어야 할 시기는 6월 초~중순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부라부라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했다가 우수품종은 마감됐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국립종자원은 사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에 파종할 2023년산 콩 종자를 3월 말까지 신청받았다는 것이다.

종자원에 따르면 신청대상 품종과 물량은 4개 품종 157.6t으로 '대원콩' 40t, '대찬콩' 97t, '선콩' 20t, '아라리밭' 0.6t이 공급됐다. 가격은 일반콩이 소독·미소독 같이 2만6590원(5kg), 팥(미소독)은 4만6060원(5kg)이었다고 한다.

새롭게 안 것이지만, 콩의 경우 세 품종 모두 장류와 두부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다. 대원콩은 모자이크병과 자주무늬병에 강하고 탈립에도 강하지만, 쓰러짐에 약한 품종으로 알려졌다. 또 대찬콩과 선콩은 생산량이 많고 쓰러



종자 콩.

짐에 강하며, 기계수확 작업이 용이해 논 재배에도 적합하다고 했다. 대찬콩은 수확이 늦으면 대원콩과 달리 비 탈립에 약하므로 반드시 적기에 수확해야 한다는 것과 선콩은 속기가 오는 10월 19일로 늦은 편이며 과습 토양에서는 검은뿌리썩음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와 함께 아라리밭은 앙금제조와 떡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으로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며, 조기에 파종 시 쓰러질 우려가 있고 늦게 파종하면 서리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으로 안 정보도 하나 더 있다. 정부 보급종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보급종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보급종 대표번호(1533-8482) 또는 해당 지역 사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막차를 탔다는 생각에 담당자에게 사정해 콩 농사 개시 종자로 대찬종을 선택하고 담당자에게 사정하다시피 해 원하는 양의 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종자확보 전쟁을 무사히 마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종자를 확보했으니, 농사의 절반이 준비된 셈이다. 이제 심은 대로 싹이 나고, 또 잘 자라 가을 햇살에 알알이 팍차여물길 기대하며 미소를 지어 본다.

/bigkim@kwangju.co.kr



###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지난 23일 농번기를 맞아 화순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재현 본부장과 동북농협 김경수 조합장을 포함한 임직원 20여명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화순군 백이면 소재 복숭아 농장에서 일손을 보탰다.

복숭아 농장주는 "적과작업은 적절한 시기에 과수의 생장을 돕기 위한 많은 손이 필요한 작업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재현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은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서창농협 '영농 봉사대' 발대식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과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용두동에서 '영농지원 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열 조합장을 비롯한 서창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대는 발대식을 마치고 범서 파종, 환경정비 등으로 영농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서창농협 영농지원 봉사대는 앞으로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를 찾아 지속적인 일손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병해충 방지를 위한 드론 방제 및 수확기 산물벼 운송 등으로 실질적인 농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열 조합장은 "영농지원 봉사대의 활동으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농촌일손돕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aT, 한국토종담합협회와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 간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토종담합협회와 토종담 업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문정진 한국토종담합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종담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국내 및 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종담협회의 농가 및 회원사가 생산한

토종담 달걀, 토종담 삼계탕 등 주요 제품들의 소비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교민시장 등 한국 토종담으로 만든 삼계탕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aT 사장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우수 농수산물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